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Focusing on the WCC's Understanding of Mission

Wonyoung Sohn^{*}
Seoul Christia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the conceptual change of mission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discourse under WCC's official documents.

CONTENTS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explores three different subjects. First, this study observes the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Second, it narrates how the concept of mission has changed throughout the history of WCC. Third, it explores how the discourse could be implied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of Korean Church.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discourse of church is connected to the mission. Therefore, it is an error for Korean church to regard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as a secondary activity of church. Second, as multicultural mission is closely related to interreligious dialogue,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must be expanded in the context of interreligious educa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mission is expanding into different dimension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cumenical activities such as a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marginality, recovery of all living things including environment, and more. Fourth, Korean church needs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based on spirituality of hospit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rapid growth of immigrants and non-churchgoers.

KEY WORDS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WCC, 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5A2A01036092).

* **Corresponding to** Wonyoung Sohn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Christian University)
E-mail: wysohn@sc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다문화 담론으로서 선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WCC의 선교 이해를 중심으로

손원영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담론의 맥락에서 선교의 개념 변화를 WCC의 공식문서를 중심으로 성찰하는 것이었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주제를 탐색하였다. 첫째, 다종교 시대에서의 다문화 선교의 의미와 함께 다문화교육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선교의 개념이 WCC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본 논의가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 탐색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에서의 다문화 논의는 기독교의 복음 선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다문화 선교교육을 부차적인 교회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큰 오류이며, 오히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교회는 다문화 선교교육에 더욱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선교는 곧 종교 간의 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으로, 다문화 선교교육은 상호문화주의 및 종교간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교의 의미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그 의미는 가난한 자의 우선적 선택, 주변성의 선교, 그리고 생태환경을 포함한 온 생명의 살림 등 다양한 의미로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교육은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통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분단과 이주민 및 가난한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대의 영성에 기반한 다문화 선교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다문화 선교교육, 세계교회협의회,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종교간교육

I. 서론

신학 및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다문화 담론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선교’(mission)의 문제와 연결하여 진행되어왔다. 특히 다문화적 관점으로부터 볼 때,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의 역사는 다름 아닌 다문화의 역사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2년 8월 독일의 칼스루헤(Karlsruhe)에서 열린 제11차 WCC 총회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공유하는 전 세계 352개의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수년간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을 뚫고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며 선교의 문제를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WCC 총회에 즈음하여 다문화적 관점에서 선교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선교교육의 변화를 새롭게 촉발시켰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향후 다문화 교육의 전개를 위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 신학계의 다문화 연구가 선교 및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WCC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논의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신근과 김은주의 논문은 비록 다문화의 이슈와 관련시켜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WCC의 선교 이해에 따른 선교교육의 문제를 탐색한 것으로서 주목을 끈다(Jang, 2011: 111-146; Jang, 2022: 67-101; Lee, 2021: 179-208). 그러나 김혜선의 논문 “한국 기독교의 다문화 관련 연구동향”에서 잘 보여주듯이, 한국 기독교의 다문화 연구는 상당 부분 다문화 선교 및 목회, 그리고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대학선교, 교회학교 사역, 성서교육 등과 연결하여 연구된 경우가 주를 이룬다(Kim, 2013: 109; Lee, 2011; Cho, 2012; Kim, 2012; Shin, 2014). 한편, 다문화교육의 연구 동향은 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반편견교육(non-biased education), 그리고 세계화교육(globalization education)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고, 또 최근에는 인권교육, 반전평화교육, 생태환경교육과 연결하여 그 외연을 넓혀왔다(Cho, 2010: 78-82). 그런데 최근에는 다문화주의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및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반 교육학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yeon, 2013: 33-57; Jo, 2018: 175-201; Lee, 2019a: 404; Lee, 2019b: 25-46; Sohn, 2019: 345-379). 본 논문은 그런 점에서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WCC와 관련된 다문화 선교교육의 주제를 탐색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탐색하려고 한다. 첫째, 다종교 시대에서의 다문화 선교의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WCC가 강조하는 다원성의 의미를 성찰하면

서, WCC 선교교육을 성찰하기 위한 준거로서 다문화교육 이론을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둘째, 선교의 개념이 WCC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1948년에 창립된 WCC의 모태인 세계선교사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 1910)와 그 후속 기구인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그리고 IMC가 1961년 WCC와 통합된 후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WCC 산하 CWME의 공식적인 두 문서인 “에큐메니컬 선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1982, 이하 EA)과 “함께 생명을 향하여”(Together Towards Life, 2012, 이하 TTL)를 중심으로 다문화 선교교육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결론 삼아 탐색해 본다.

II. 다종교 시대에서의 다문화 선교교육

1. 다문화와 다원성의 문제

WCC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세 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구성된 세계교회의 협의체이다. 그것은 교회들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 운동(Faith and Order), 교회의 사회 참여에 해당하는 ‘삶과 봉사’(Life and Work) 운동,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세계선교와 전도’(World Mission and Evangelism) 운동이다. 이 세 운동이 WCC이란 이름 아래로 하나로 합류되어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를 추구하고 있다. 즉 다양성 속의 일치란 다양한 신학의 일치, 다양한 봉사의 일치, 그리고 다양한 선교의 일치이다(Chung, 2019: 357-359).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성 속의 일치 운동이다. 그래서 이형기는 이러한 WCC 운동의 역사를 일컬어 “에큐메니컬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세계교회의 큰 전환기를 호명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Rhee, 2011: 15-18). 다만 이형기는 그의 책 <에큐메니컬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패러다임을 ‘신앙과 직제’ 및 ‘삶과 봉사’ 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본 논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세계선교와 전도’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형기가 위 책에서 간과한 ‘세계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며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사는 ‘에큐메니컬’(ecumenical)이란 개념의 의미가 확장되는 역

사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 본래 에큐메니컬이란 단어는 희랍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the whole inhabited world)을 의미한다(Rhee, 2011: 13). 하지만 에큐메니컬의 의미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동적 활동과 더불어 적어도 세 가지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들 사이의 일치와 친교, 인류의 화해 및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다(Chung, 2019: 360-364). 이와 관련하여 이형기는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 통신의 혁명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와 다종교의 지구적 이슈들에 직면하여,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의 의미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각을 일컬어 “집안 살림살이(managing of the household), 생태학(ecology), 그리고 다문화와 다종교가 함께 더불어 거주하는 세계의 구현”으로 재해석하였다(Rhee, 2011:14). 이러한 에큐메니컬이란 의미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선교 의미의 확장이기도 하다. 특히 이형기가 세 번째로 언급한 “다문화(multi-cultures)와 다종교(multi-religions)”의 이슈는 결코 그것이 WCC 운동의 주변적 이슈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오이코노미아의 중심적 자리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관심 속에서 선교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와 다종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원성’(plurality)의 이슈를 만들어냈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초 WCC의 출발점이 된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diversity)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할 것인지 협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 논의는 최근 칼스루헤에서 열린 제11차 WCC 총회에 이르기까지 WCC의 모임이 거듭될수록 더욱 확대되어, ‘다양성’ 내지 ‘다원성’은 회의의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CWME 산하의 종교대화국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한 여러 문서를 발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77년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WCC의 종교 간 대화 회의는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과 선교를 위한 안내 지침서로서 “살아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지침”(Guidelines on Dialogue with People of Living Faiths and Ideologies, 1979)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1990년에는 WCC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WCC의 다원성에 대해 본격적인 다원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서인 “바아르 선언”(Baar Statement: Theological Perspective on Plurality, 199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태국 방콕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WCC와 가톨릭교회 종교대화위원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여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적 증언”(Christian Witness in a Multi-Religious World, 2011)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들은 모두 종교 다원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 종교다원주의가 WCC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되자 WCC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두 문서인 “우리는 누구인가: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인 정체성”(Who Do We Say That We Are: Christian Identity in a Multi-Religious

World, 2016)과 “종교적 다원성과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Religious Plurality and Christian Self-Understanding, 2016)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9년에는 WCC와 가톨릭교회 종교대화 위원회가 공동으로 다종교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을 위해 “다종교 세계에서의 교육”(Education for Peace in a Multi-Religious World, 2019)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문서들이 보여주듯이, ‘다양성’ 내지 ‘다원성’은 WCC의 핵심적인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CC가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다원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옳은 지적이지만, 수 많은 WCC 비판론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WCC가 그것을 교리화하여 소위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WCC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승인하여 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WCC가 다원성(plurality)을 자주 언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WCC가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WCC와 관련한 다문화 논의는 불가피하게 ‘종교적 다원성’ 및 ‘종교 대화’와 연결하여 이해될 수 밖에 없다.

2. 다문화교육으로서의 선교교육

선교(mission)는 기독교 문화와 다양한 비기독교 문화 곧 ‘다문화’와의 역동적 만남 속에서 인간 존재 및 사회의 궁극적 변형(ultimate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일체의 복음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교육은 일종의 ‘다문화교육’ 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이란 보통 인종적 편견과 차별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종 내에서 발생하는 계층, 성별, 심지어 동성애 등의 광범한 차이까지를 포함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교육적 전략을 의미한다(Sohn, 2019b, 44).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문화 선교교육은 기독교 복음의 빛 하에서 다양한 문화와의 역동적 만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로 특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체의 기독교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는데, 세 가지 논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주류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베리(J. W. Berry)에 의해 대표된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응모델’로 불리는 그 이론은 주류 문화의 수용과 거부, 그리고 고유문화의 유지와 포기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각각 통합모델(integration), 동화모델(assimilation), 분리모델(segregation), 그리고 주변화모델(marginalization)로 구분된다(Berry, 1997: 5-34). 이 넷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합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앞의 분류와는 반대로 주류집단의 입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태도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이 입장은 캐슬과 밀러(S. Castles & M. J. Miller)로 대표된다. 그들은 다문화모델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곧 동화모델, 차별/배제모델,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델이다(Castles & Miller, 1998). 그런데 다문화교육 이론가들은 이 세 모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다문화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동화 및 차별의 모델은 궁극적으로 이주민에 대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모델인 반면,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일방적인 동화나 선별적인 배제가 아닌 집단의 공존을 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편, 셋째는 본 논문의 주요 관심이기도 한 분류로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비교를 통해, 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¹⁾ 이것은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캐나다의 다문화 연구자인 테일러(C. Taylor) 등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그는 “다문화주의인가 아니면 상호문화주의인가?”(2012)라는 논문을 통해 불어권의 퀘벡 주 다문화정책이 불가피하게 ‘상호문화주의’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불어권 퀘벡과 달리 영어권 다문화주의는 상당 부분 캐나다의 통합을 늦추거나 좌절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기원 공동체 안으로 도피하는 것을 부추김으로써 결국에는 계도화시키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Taylor, 2012, 414). 따라서 그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먼저 다문화주의를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상위의 층위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을 조성하며 평등을 산출하고 유지하도록 도입된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가 있고, 반면에 하위의 층위에 ‘상호문화주의’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놓는다. 그런 뒤, 그는 이제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 제한적 의미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상호문화주의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차이의 인정과 통합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들을 포함한다면, 접두사 ‘상호’(inter)가 붙은 상호문화주의는 통합의 국면을 더 환기시키는 반면에

1)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자의 용어를,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는 후자의 용어를 더 선호한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를 구분하는 입장에 서 있다. 특히 전자는 인종차별(racism)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에, 후자는 상호대화를 통해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 해결하려는데 보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종교적 다원성’(religious plurality)의 이슈와 연결하여 ‘상호문화교육’의 차원에서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다종교 상황을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종교교육’(pluralistic religious education)을 제시한 잭슨(R.Jackson)의 주장이나, 종교적 다원성의 논의를 ‘전통적 다원성’(traditional plurality)과 ‘현대적 다원성’(modern plurality)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을 주장한 스케이(G. Skeie)의 논의는 흥미롭다. 자세한 것은 R. Jackson (2004), *Rethinking Religious Education and Plurality: Issues in Diversity and Pedag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Falmer), 1-3, 127-129; G. Skeie (1994), *Plurality and pluralism: A challenge for religious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1), 47-59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맥락에서 목회도 ‘다문화목회’(multicultural ministry)와 ‘상호문화목회’(intercultural ministry)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자세한 논의는 D. A. Anderson (2004), *Multicultural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와 G. J. S. Kim & J. Aldredge-Clanton (eds.) (2017), *Intercultural Ministry: Hope for Changing Worl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참조.

접두사 ‘다’(multi)가 붙은 제한적 다문화주의는 첫 번째 목표인 차이의 다양성과 그 인정에 더 비중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Taylor, 2012: 416). 결국 상호문화주의는 제한적 다문화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여 통합과 상호행위를 통한 문화변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17: 82). 이런 점에서 주광순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비교한 뒤, 상호문화주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시사적이다.

상호문화주의는 현실 사회의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다문화주의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는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의 인정과 관용을 강조한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는 데에 있다.(...)다시 말해서 (비록 한 사회 안에서라도) 전통들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다양하고도 다원적인 길들이 서로서로 ‘교차, 조우,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길을 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상호변혁의 길이다(Joo, 2016: 276).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다문화교육 담론은 캐슬 & 밀러가 말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되, 테일러나 주광순이 말한 것처럼, ‘상호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주민에 의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현지인과 이주민 모두가 상호 간 소통을 통해 존재의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이 강조하는 다문화 선교교육은 다문화주의가 지시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호 간 진정 어린 대화와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변형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상호문화주의에 따른 다문화교육은 일종의 ‘상호문화교육’으로 달리 부를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이웃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교육에서 소위 ‘종교 간 교육’(interreligious education)의 유형과도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실천신학자인 반 데르 반(van der Van)에 의하면, 이웃종교를 교육하는 종교교육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van der Van, 1994: 244-260). 첫째는 자신의 종교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가르치는 ‘단일종교 모델’(monoreligious model), 둘째는 종교학 수업처럼 다양한 이웃 종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다종교 모델’(multireligious model), 그리고 셋째는 종교 간의 상호 존중심을 기반으로 이웃종교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인 변형을 추구하는 ‘종교 간 모델’(interreligious model)이다. 부버(M. Buber) 식으로 표현하면, 단일종교모델은 ‘나-관점’(I-Perspective)으로, 다종교모델은 ‘나-그것’(I-It)의 관점으로, 그리고 종교 간 모델은 ‘나-당신’(I-Thou)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Lee, 2019a: 4). 이것은 유형론적으로 볼 때, 베리가 강조한 문화적응모델로서의 동화모

델은 ‘단일종교모델’과 대비되고, 캐슬 & 밀러가 강조한 다문화주의는 ‘다종교모델’과, 그리고 테일러가 강조한 ‘상호문화주의’는 ‘종교 간 모델’과 깊은 유사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의 다문화 선교교육은 상호문화주의 및 종교 간 교육 모델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III. WCC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문화 선교교육

WCC의 선교 개념은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WMC, 1910)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선교협의회(IMC, 1921)와 WCC의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CWME, 1961)로 이어지는 지난 1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큰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WCC 총회가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선교의 개념은 그에 상응하여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로스 등이 편집한 책, <에큐메니칼 선교학>(Ross et al., 2018)은 선교의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²⁾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변화된 WCC 선교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다문화’(multiculture)의 범주에 따라 다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제1기는 “부드러운 정복으로서의 선교”로서 동화주의 선교교육 시기(1910-1951), 제2기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및 가난한 자의 우선적 선택으로서의 선교”로서 다문화주의 선교교육 시기(1952-2011), 그리고 제3기는 “주변성의 주체화로서의 선교”로서 상호문화주의 선교교육 시기(2012-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이 책에 의하면, 에딘버러 대회(WMC, 1910) 이후 마닐라 대회(CWME, 2012)까지 약 100년간 선교의 개념은 미시적으로 볼 때 적어도 16번의 변화가 있었다. 그 각각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에딘버러 대회(1910)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발점”, 예루살렘 대회(1928)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탐바람 대회(1938)는 “비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 메시지,” 휘즈비 대회(1947)는 “순종 안에서의 동반자 관계”, 빌링겐 대회(1952)는 “하나님의 선교”, 아치모타 대회(1957-1958)는 “교회와 선교”, 뉴델리 대회(1961)는 “IMC와 WCC의 통합”, 멕시코시티 대회(1963)는 “육대륙에서의 선교”, 방콕 대회(1972-1973)는 “오늘의 구원”, 뮌헨 대회(1980)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WCC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문서(1982)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 선언”, 산안토니오 대회(1989)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선교”, 살바도르 드 바이아 대회(1996)는 “복음과 문화”, 아테네 대회(2005)는 “치유와 화해”, 에딘버러 대회(2010)는 “함께 증언하기”, 그리고 마닐라 대회(2012)에서 작성하고 WCC 중앙위원회가 공식승인하여 WCC 제10차 총회에 제출된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이다. 자세한 것은 Ross et al., 에큐메니컬 선교학, 27-230 참조.

1. “부드러운 정복으로서의 선교” - 동화주의 선교교육

다문화 선교교육의 제1기는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사대회(WMC)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빌링겐 대회(1952)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의 선교교육은 네 가지로 그 특징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선교를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처럼 ‘정복’(occupation)으로 보려는 특징이 있다(Ross et al., 2018: 36). 이것은 에딘버러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제1분과 위원회의 주제인 “비기독교 세계에 복음 전파하기”라는 구호 속에 그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다. 이 대회의 논의는 서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세계’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비기독교 세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의 주요 관심은 전자(서유럽과 북미)에 대한 관심보다는 후자인 비기독교 세계 곧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연안(제3세계)에서의 선교사역에 있었으며, 그곳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선교방법에 논의가 집중되었다(Ross et al., 2018: 29). 당시 이 회의에 참여한 교회의 대표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교회의 선교 사명이 완수될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전혀 없는 적기임을 확신하면서 선교를 위한 교회 간 협력, 특히 선교방법과 선교행정에 초점을 모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이 시기가 그 이전의 강압적인 식민주의 시대와 다른 점은 과거의 식민주의 시대가 무력을 앞세운 정복으로서의 개종 선교였다면, 이 시기의 선교는 서구적 ‘이성’의 확산에 따른 ‘부드러운 정복’으로서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다문화 선교교육은 다문화교육 이론으로 볼 때, ‘용광로 모델’(melting pot)을 따르는 ‘동화주의’(assimilation) 내지, 반 데르 반(van der Van) 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단일문화 선교교육’(monocultural education in mission)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이성’ 중심의 다문화 선교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이 시기를 ‘부드러운 정복’의 시기라고 언급했지만, 그 부드러운 정복의 의미는 곧 ‘이성’을 통한 설득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서구사회가 강조하였던 이성의 보편성을 선교지에서 선교교육을 통해 그대로 적용시켜 복음화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WMC는 서구적 시각에 근거하여 피선교지의 ‘정복’(복음화)을 위해 선교지의 유능한 교회지도자들을 양성할 것과 또 그것을 위해 현지의 선교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학교’(mission school)를 중시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생활의 기독교화에 연관된 교육”이란 주제로 모인 WMC의 제3분과 위원회의 주 임무이기도 하였다(Ross et al., 2018: 48-53). 이형기는 이러한 WMC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그것은 18-19세기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독일의 자유주의신학에 힘입은 복음 선교로서, 무엇보다 19세기의 산업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식민지 팽창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 패러다임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Rhee, 1999: 19-25).

셋째는 선교지의 문화 특히 타종교의 문화에 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복’을 하되 현재는 최

대한 관용적 입장을 취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WMC의 제4분과 위원회의 보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파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타종교는 일종의 구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타종교는 기독교를 통해 더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는 ‘성취론’(fulfillment)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제4분과 위원회는 선교사의 이미지를 과거처럼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피하여 타종교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이미지로 대체시켰던 것이다(Ross et al., 2018: 54-60).

넷째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선교의 개념에 큰 전환점을 맞이한 특징이 있다. 비록 에딘버러 대회(1910)의 ‘부드러운 정복’으로서의 선교 정신이 이후 예루살렘 대회(1928)와 탐바람 대회(1938) 그리고 휘트비 대회(1947)로 계속 이어졌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회는 인간 이성 중심적인 선교의 낙관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탐바람 대회에서 크레머(H. Kraemer)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가 타종교를 완성하거나 성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Ross et al., 97-99).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당시 유럽에 등장한 유사종교인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그리고 나찌 등의 국가주의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 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형기가 예루살렘 대회(1928) 이후의 선교신학을 일컬어 에딘버러 대회에 맞서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Rhee, 1999: 24-43)이라고 불렀지만, 다문화 담론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에딘버러 대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루살렘 대회와 탐바람 대회 역시 선교를 ‘정복’의 의미로 보면서, 선교의 주체도 여전히 ‘인간’(선교사)과 ‘교회’로 보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선교 및 가난한 자의 우선적 선택으로서의 선교” - 다문화주의 선교교육

다문화 선교교육의 제2기(1952-2011)는 IMC의 빌링겐(Willingen) 대회로부터 시작하여 제10차 부산총회 이전까지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선교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기로서, 다문화 선교교육 역시 이전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 다문화 선교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서술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 선교의 개념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으로 바뀐 특징이 있다. 선교가 과거처럼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이거나 혹은 교회 중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교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빌링겐 대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독일의 선교학자 하르텐스타인(K. Hartenstein)이 빌링겐 대회의 주된 신학적 강조점을 설명하면서 만든 용어로서(Ross et al., 2018: 112), 이미 칼 바르트(Karl Barth)의 선구적인 신학 연구에 의해 기초한 선교 이해였다.

이것은 선교학자 보슈(D. J. Bosch)의 말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새로운 이미지 안에서, 선교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다. …… 그럼으로써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운동이며, 교회는 그 선교를 위한 도구로 간주된다.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지 그 반대는 아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내는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Bosch, 1991: 390).

이와 같은 선교의 의미는 에큐메니컬 선교학에 대한 결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후에 가톨릭교회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서인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지상의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인데 이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의 선교에 그 기원이 있기 때문이다.”(Flannery, 1975: 814) 따라서 이 시기의 다문화 선교교육은 ‘다문화주의 선교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in mission)이라고 달리 부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선교지의 문화는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보다 결코 열등한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가기 전부터 이미 먼저 그곳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활동하신 선교의 무대이다. 따라서 선교지의 문화는 결코 부정되어야 할 문화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문화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자칫 문화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성과 함께 복음전도가 사회정치적 활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IMC 방콕 대회(1973) 이후, 복음주의자들은 WCC와 결별하고 로잔에서 세계복음화위원회(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LCWE, 1974)를 조직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하여 다문화 선교교육이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화 교육’이요 동시에 ‘축하 잔치의 교육’으로 보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WCC의 신앙과 직제 및 여성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독교교육학자 러셀(L.M. Russell)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잘 반영되어 있다.

기독교교육이란 사람들을 참 인간성으로 되돌려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참가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것이 성립하는 자리는 특히 증인공동체라고 불린다. 증인공동체의 구조는 하나님과 이 세계 사이의 대화의 관계로 특색지어지며, 거기서 실천되는 교육의 과정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가령 지금 교육 활동 전체의 목적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축하의 잔치라는 한 말로 족하다. 즉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현재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려 하시는 일을 말에 의한 증언과 사랑에 의한 봉사의 활동을 통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다. 이렇듯 기독교교육은 곧 축하 잔치의 교육(celebration education)이다(Russell, 1972: 192-193).

위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에 축하하는 행위이고, 또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하는 인간화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증언자로 참여하는 ‘증인공동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선교교육은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축하하는 일이며,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참 인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해방신학의 원리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에 근거하여 선교란 ‘가난한 자와의 연대’로 이해하면서 해방교육론으로 전개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천명한 대회는 CWME의 멜버른 회의(1980)이다. 이 회의에서는 “가난한 자의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이라는 해방신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를 편애하는 하나님에 큰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멜버른 회의는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편드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네 가지의 구체적인 활동을 주문하였다. 그것은 곧 “가난한 사람의 투쟁에 연대하는 교회가 되라”, “착취와 빈곤화의 힘에 맞선 투쟁에 참여하라”,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라”이었다(Ross et al., 2018: 157-161). 따라서 가난한 자와의 연대로서 다문화 선교교육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연대로 표현된 해방적 활동의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WCC의 교육고문으로 활동(1969-1980)했던 프레이리(P. Freire)의 의식화 교육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민중들을 위해 자신의 해방교육론을 중심으로 자문하였던 것이다(Kirylo & Boyd, Freire, 2021; 164). 그의 교육은 침묵의 문화를 거부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이요, 억압당하는 자들의 해방을 추구하는 프락시스 교육이었다.

넷째는 WCC 총회가 공식 승인한 문서인 “에큐메니컬 확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ical Affirmation, 1982)과 후에 논란이 되었던 “바아르 선언”(Baar Statement, 1990)에 종합적으로 잘 반영된 특징이 있다. 우선, “에큐메니컬 확언” 문서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신학 및 해방신학의 입장을 잘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1974년에 벌어진 에큐메니컬 운동과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맥락에서 탄생되었다. 그런 점에서 마티(J. Matthey)가 이 문서를 일컬어 “진정한 수렴문서”라고 부른 것은 적절하다(Matthey, 1999: 296). 즉, 이 문서는 삼위일체론적 기초와 기독교론적 집중을 통해 영적 복음과 물질적 복음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을 깨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전도는 정의 문제와 관련한 예언자적 참여를 강조하였고, 반대로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교회의 구심성에 대한 명백한 확언과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Ross et al., 2018: 163). 특히 이 문서는 기독교 선교를 강조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며, 특히 살아있는 종교를 가진 이웃 종교인들 사이에서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된 증언은 다른 사람들의 독특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oss et al., 2018:

172-190). 특히 “에큐메니컬 확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웃 종교인들의 삶을 진지하게 존중하는 만남의 사건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다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다. 복음 증언은 일방적인 과정이 될 수 없고 쌍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이웃들이 지닌 가장 깊은 확신들의 일부를 알게 된다.”(Ross et al., 2018:191)

다른 한편, 이러한 “에큐메니컬 확언” 문서의 연장선 상에서 발표된 문서인 “바아르 선언문”은 다양한 종교적 전통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이 다른 종교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활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사람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 속에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응답해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을 증언해왔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증언을 궁극적인 진지함과 모든 나라의 민족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임재가 항상 있어왔음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증언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한계를 둘 수 없다. 우리는 종교적 전통의 다원성을 인류의 풍부함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들, 나라들과 관계해 오셨던 많은 방식의 결과로서 본다(2.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 Baar Statement, 1990).

결국 “에큐메니컬 확언”과 “바아르 선언문”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극단화함으로써 종교적 다원성이란 이름으로 이웃 종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을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WCC의 문서는 다문화 교육이론 중 ‘다문화주의’의 주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웃 종교에 대하여, 특히 종교적 다원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웃 종교를 단순히 윤리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내적 진리성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수주의적 신학자들은 WCC의 노선을 일컬어 종교 다원주의 노선이라고 공격하였던 것이다.

3. “주변성의 선교” - 상호문화주의 선교교육

WCC의 선교 개념이 다시 한 번 크게 바뀌게 된 것은 제3기 곧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그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제2기에서 벌어진 엄청난 변화 못지않게 선교개념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시기의 선교 개념이 “함께 생명을 향하여”(Together Towards Life/TTL, 2012)에서 보여주듯이 ‘성령의 선교’로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사실 성령의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의 다름 아니다. 1952년 빌링겐 대회 이후 강조되어온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여전히 WCC 선교 개념의 뼈대를 이루고 있

다. 특히 1982년 공인된 문서인 “에큐메니컬 선언”에서도 그것을 강화하여 표현하기를, 선교는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사역”(Ross et al., 2018:162)으로 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총회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성령’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자칫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잘못 흐르는 것을 경계하려는 신학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 흔적은 이미 1989년 열린 CWME 산 안토니오 대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토안토니오 대회에서는 WCC 내에서 오랫동안 고심했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공식화했던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지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제한을 둘 수 없다.”(Ross et al., 2018:205) 사실 이 공식은 표면적으로는 상호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교 개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앞의 문장은 일종의 부사절로서 후자의 문장을 꾸며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언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산안토니오 선언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선교관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론적 이해를 통해, 특히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선교는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hn 14:16-17, 26). 결국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 되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선교’이다. 이러한 선교의 이해는 ‘상호문화주의적 선교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in mission)을 지지하도록 이끈다. 왜냐하면 상호문화주의적 선교교육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이웃종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개방적인 대화적 선교관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선교교육이기 때문이다(TTL, 16번). 더욱이 부산총회에서 승인된 선교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선교의 본질로서 ‘생명살림’을 강조한 것(TTL, 3번)은 더욱더 우리가 이웃 종교 및 다문화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또 생명살림을 위해 공동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주변성’(marginality)의 선교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주변성에 대한 강조는 이미 앞의 시기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에큐메니컬 선언”에서 “육대륙에서 육대륙을 향한 선교”(Ross et al., 2018: 187)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에 선교지였던 제3세계 지역이 이제는 오히려 선교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기에 이르러서 그러한 주변성의 정신은 더욱 강화되어 “함께 생명을 향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는 삶과 교회와 선교 안에 있는 부정의들과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오직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특권 있는 자가 소외된 자에게 선교할 수 있는 인식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선교운동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억압과 주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TTL, 38번) 그러면서 과거에 주변부 사람들을 선교의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본 것을 비판하며, 이제는 가부장적 이념들을 해체하고 인종주의와 카스트 제도 같은 사회적 악에 대해 저항하는 선교를 강조한다. 그래서 선교는 주변부로부터 정의와 포용성을 지향하는 활동이자 동시에 치유와 온전성의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변성 신학’으로 알려진 이정용의 신학은 주변성의 선교 이해를 위해 유용하다. 그에 따르면, 주변성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하나는 고전적 정의의 주변성으로서 두 문화 사이(In-Between)에 살면서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하나는 현대적 정의의 주변성으로서 두 세계 모두(In-Both)에 사는 경우이다. 이것은 마치 ‘아시아계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는 진정한 아시아인이자 동시에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정용은 두 가지 모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그 둘을 모두 극복하고 ‘두 세계의 넘어에’(In-Beyond)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두 세계 모두에 살면서도 동시에 두 세계 사이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어느 한쪽에도 묶이지 않고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Lee, 2014:73-87). 이런 존재가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구유에서 주변인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친구가 되었으며, 십자가의 죽음도 주변성의 표상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통해 자신을 주변화시킨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창조적 중심이 되고, 결국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화해시키는 진정한 중심이 되었다(Lee, 2014: 146-157). 이런 점에서 구별육이 주변성의 신학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다문화 역량 제고와 문화지수 강화를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주민 사역자와 이주민 평신도의 발굴과 지원을 강조한 것은 시사적이다(Koo, 2021:579-580).

셋째는 ‘환대(hospitality)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선교교육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오늘날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이민상황을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실천적인 선교교육의 방법으로서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TL, 70번) 왜냐하면 교회는 이민 공동체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문화 간의 교류를 위해 의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환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들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다양성 안에서 공동증언의 표현으로서 다문화 목회와 선교를 창조해 내야 한다. 이것은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정의를 옹호하고,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나님의 환대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집단들을 주인으로 이주민과 소수자들을 손님으로 보는 우리의 이층구조 개념을 극복하도록 요청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환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모두 겸손과 상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성령에 의해 초대받는다(TTL, 70, 71번).

위 인용문에서 강조되듯이, 환대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자리바꿈하는데 환대의 절정이 있다.

즉 우월한 지위에 있는 주인이 약자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1차원적인 환대이다. 오히려 진정한 환대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처럼, 주인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나그네를 환대할 때, 그 관계가 역전되어 나그네가 마치 주인의 위치에 서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또 떡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의 영성은 다문화 선교교육에서 교사와 학습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교사와 학습자는 주인과 나그네 관계처럼 서로 낮선 타자로 만났을지는 몰라도 서로를 환대하는 가운데 양자 모두는 환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셀(L. M. Russell)이 환대의 목회(ministry of hospitality)를 주장하며, 다문화교육으로서 나그네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Russell, 2009: 18-20). 또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가 하나님의 선교로서 공동체의 성령을 강조하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머징 교회’나 ‘프레시 익스프레션’(fresh expression)과 같은 새로운 교회 형태를 제시한 것 역시 환대를 강조한 다문화 선교교육의 차원에서 시사적이다(TTL, 72번). 왜냐하면 최근 한국교회는 자신의 교회성 상실로 인해 교회를 떠난 소위 ‘가나안 신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대의 영성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서 가나안 신자를 돌보려는 “가나안교회 운동”은 다문화 선교교육의 차원에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Sohn, 2019: 7-8).

IV. 결 론

본 논문은 다문화 담론의 맥락에서 선교의 개념 변화를 WCC의 공식문서를 중심으로 성찰하였다. 논의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서술될 수 있다. 첫째, 교회에서의 다문화 논의는 기독교의 복음 선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다문화 선교교육을 부차적인 교회 활동으로 간주해서는 큰 오류이며, 오히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교회는 다문화 선교교육에 더욱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선교는 곧 종교 간의 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으로, 다문화 선교교육은 상호문화주의 및 종교 간 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교의 의미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그 의미는 가난한 자의 우선적 선택, 주변성의 선교, 그리고 생태 환경을 포함한 온 생명의 살림 등 다양한 의미로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교육은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는 맥락에서 보다 통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분단과 이주민 및 가나안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환대의 영성에 기반한 다문화 선교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문화 선교교육론에 기반한 보다 구체적인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이 요청된다.

References

- Ahn, S. O. (2011). A study on 'the concept of mission' in ecumenical miss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0, 361-385.
- Anderson, D. A. (2004). *Multicultural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34.
-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
- Byeon, J. H. (2013).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approac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2, 33-57.
- Castles, S. & Miller, J. M.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ho, Y. W. (2010). Meanings and tasks of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and Mission*, 66, 56-90.
- Cho, G. S. (2012). The missiological strategy on comparison of multi-culture a migrant of religious conflict in Europe and Korea. *Journal of Korea evangelical missiological society*, 17, 175-209.
- Chung, B. J. (2019). The paradigm shift in the 21st global ecumenical movement and the tasks of the Korean church ecumenical movement. *The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54, 355-387.
- Flannery, A. (ed.) (1975). *Vatican Council II: 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 Hahn, K. I. (2011). "Witness and Dialogue": Dialogue with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Mission and Theology*, 7, 143-172.
- Jackson, R. (2004). *Rethinking Religious Education and Plurality: Issues in Diversity and Pedag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Falmer.
- Jang, S. G. (2022). Seeking a holistic model of mission education in dialogue with public theology. *Mission and Theology*, 57, 67-101.
- Jo, Y. C. (2018). Reflexion on the intercultural education for establishment of global

- multicultural society. *Cultural Contents Studies*, 13, 175-201.
- Joo, K. S. (2016). The vision of intercultural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dong(Great Unity) Philosophical Association*, 76, 268-289.
- Kim, G. J. S. & Aldredge-Clanton, J. (eds.) (2017). *Intercultural Ministry: Hope for Changing Worl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 Kim, H. S. (2013). A research on the trends of Christian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Christian Social Work*, 23, 109-139.
- Kim, J. H. (2017). An interpretation of the difference of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based on the standpoint of Charles Taylor. *Cogito*, 82, 70-99.
- Kim, S. I. (2012). Educational ministry revisited in the light of the missional church's paradigm, *Gospel and Mission*, 17, 9-38.
- Kirylo, J. D. & Boyd, D. (2017). *Paulo Freire: His Faith, Spirituality, and Theology*. 최종수 역 (2021). 파울로 프레이리: 신앙, 영성, 신학. 서울: 신앙과지성사.
- Koo, B. O. (2021). The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Korean church in relation to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Focusing on Jung Young Lee's theology of marginality. *Theology and Praxis*, 76, 561-586.
- Lee, J. C. (2019a). Religious others in (Christian) seminaries: Three approaches and conundrums. *Religions*, 10, 595(1-12).
- Lee, J. C. (2019b). The Tears caused by abuse power, hope inspired by love: Exploring the meanings and weight of "interreligious."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54(1), 25-46.
- Lee, J. Y. (1995).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신재식 역.(2014). 마지널리티: 다문화시대의 신학. 서울: 포이에마.
- Lee, Y. S. (2011).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to mission of Christian university in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College & Mission*, 20, 37-67.
- Rhee, H. K. (1999). Mission theology in the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 From Edinburgh to Willingen. *Mission and Theology*, 4, 15-65.
- Ross, K. R., Keum, J., Avtzi, K., & Hewitt, R. R. (eds.). *Ecumenical Missiology: Changing Landscapes and New Conceptions of Mission*. 한국에큐메니컬학회 옮김 (2018). 에큐메니컬 선교학: 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Russell, L. M.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웅섭 옮김 (1972).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Russell, L. M. (2009).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Shin, S. B. (2014). Multicultural society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through Bible story based approach.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3, 185-208.
- Skeie, G. (1994). Plurality and pluralism: A challenge for religious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1), 47-59.
- Sohn, W. Y. (2019a). A study on Korean multiculturalism as a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discourse based on the 'Pungryudo' model, *Theological Thought*, 184, 351-385.
- Sohn, W. Y. (2019b).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as religious peace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0, 37-61.
- Taylor, C. (2012). Interculturalism or multiculturalism?.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8(4-5), 413-425.
- van der Van, J. A. (1994). Religious values in the interreligious dialogue. *Religion & Theology*, 1, 244-260.
- 손원영 (편) (2019). 교회밖교회: 다섯빛깔가나안교회. (Translated with English) Sohn, W. Y. (ed.) (2019). *Church in Beyond: Five Colored Churches*. Seoul: Arts & Spirituality.
- 이형기 (2011).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한들출판사. (Translated with English) Lee, H. K. (2011). *Paradigm Shift in the Ecumenical Movement*. Seoul: Handl Press.
- 장신근 (2011). 공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장로교신학대학교출판부. (Translated with English) Jang, S. G. (2011). *Public Faith in Church and Family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Seminary & University Press.